

2024학년도 수능 국어를 통해 2025학년도 수능 국어를 엿보다.

당신의 서사를 완성시킬 국어  
오르비 클래스 윤응식T

## 1. 독서

### (1) 2024학년도 전체적인 Trend

독서 난이도를 낮춘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한 해였다. 독서 난이도가 정말 낮아진 걸까? 평가원과 교육부에서 생각한 고난이도 문제는 과연 무엇인걸까?

#### 소재를 중심으로.

매해 수능이 끝나면 수능 독서와 관련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경제전문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혹은 물리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킬러 문제는 풀 수 없다. 어렵다.” 등등...

어려운 소재와 낯선 소재를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고난이도이며 수험생의 학습량에 차이에 따라 수능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자연스럽게 올해는 수능 독서에서 EBS를 연계함으로써 소재 난이도를 낮춘듯하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수험생이 보편적으로 어려워하는 인문 제재의 난이도가 높아진 듯하다.

#### 문제를 중심으로.

‘지문의 소재가 쉬워지면 당연히 지문의 난이도가 쉬워지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명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과학-기술 지문, 사회(법-경제) 지문이 쉽게 쓰여 진다면 고난이도 킬러 문제를 출제하기 어렵다.

왜 그럴까? 그리고 지문이 쉽게 쓰여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러한 경향은 2024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났고, 개인적으로 9평에서는 6평 보다는 난이도를 올림으로써 과거 기출에서 빈번히 출제되었던 문제가 출제되었다.

(아마 6평 등급컷을 보고 변화를 준 것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 (2)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독서가 마냥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수능과 같이 출제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능 국어는 분명 언어시험이다. 즉, 행정고시 1차 시험 중 PSAT과 법학적성시험(LEET) 중 언어이해 시험과 유사한 부분이 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사례 적용’ 문제가 평가원에서 많이 출제된다. 실제로 LEET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때론 평가원이 출제한 특정 문제가 더 어렵거나 LEET 시험 대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물론 2024학년도 LEET에서는 출제되었지만...)

즉, 2017학년도 보험지문, 2018학년도 오버슈팅, 2019학년도 뉴턴, 2020학년도 BIS,

2021학년도 채권 혹은 3D 합성 영상, 2022학년도 기축통화 혹은 주차 카메라, 2023학년도

**당신의 서사를 완성시킬 국어, 윤응식T**

기초대사랑과 같은 지문을 쓰고, 해당 지문에서 킬러(?)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데 분명 평가원은 이 부분에서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은 ‘언어적 감각’을 평가 기준에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어적 감각이라고 해서... 절대 국어 지능, 재능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니 겁먹지 마시길!

EX.

**10. ㉠과 관련하여 윗글의 A기법과 <보기>의 B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 ①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 ②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 ③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 ④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 ⑤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B 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 ②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 ④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 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 당신의 서사를 완성시킬 국어, 윤응식T

추가적으로 인문 지문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인문 지문을 중심으로 정보량이 많고, 조금은 난해하게 처리될 수 있는 지문을 쓰고 다른 언어시험에서도 강하게 평가하고 있는 비판 문제를 강화한 것이다.

### (3)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2024학년도 이전 평가원과 2024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된 고난이도 문제 유형을 각각 A유형과 B유형이라고 해보자.

A유형은 이제 사라질 것인가?

B유형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 문학

### (1) 2024학년도 전체적인 Trend

2024학년도 수능 국어는 ‘문학’이 핵심이었다고 할 만큼 난이도 상승이 눈에 띄었다. 6평에서는 현대소설과 현대시에서 9평에서는 모든 작품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9평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운문복합 속 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Trend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024학년도 기출에서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했지만 사실 모든 정답 선지의 근거는 반복되었다. 다만, 과거에는 시험지 하나당 한 문제 내외로 출제되던 것들이 세 개 이상 출제된 것이 난이도 상승의 원인이다.

수능 문학에서의 오답률이 높은 문항의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순위	문항번호	오답률
2	30	69.9%
7	34	62.5%
8	27	62.5%
10	28	62.4%
13	31	57.1%

순위	문항번호	오답률	①	②	③	④	⑤
2	30	69.9%	30.1%	15.1%	20%	26.2%	8.6%
7	34	62.5%	3.7%	13.6%	31.6%	37.5%	13.6%
8	27	62.5%	12%	8.5%	11.5%	30.5%	37.5%
10	28	62.4%	37.6%	35.9%	11.6%	8.3%	6.5%
13	31	57.1%	7.8%	42.9%	20.6%	9.5%	19.2%

### (2)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2024학년도 6월, 9월 평가원에서 힘을 주어 출제한 것의 째뽕이다. 즉, 각각에서 어렵게 출제된 것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뜻이다. 이러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ㅏㅏㅏㅏ

### (3)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문학은 개인적으로 독서보다 점수 상승, 실력 향상이 쉬운 편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 공통 과목 주요 기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흰 벽에는 —  
 어렵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  
 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룰테면 수양의 늘어진 ㉡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덧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뒤투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 : 함께 도를 닦는 벗.

(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 너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잇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잇지 않기를 바라느냐? 잇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 그렇다  
 면 잇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잇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  
 슌 근거로 할까?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잇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잇어도 좋을 것은 잇지 못하  
 고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잇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잇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잇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잇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  
 각을 잇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잇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  
 만한 짓을 잇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잇지 못한다. 의롭지 않  
 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잇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잇지 못한다.  
 그래서 잇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잇  
 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잇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잇어  
 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잇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잇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잇으며, 낮은 지위에 있  
 으면서 제 분수를 잇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잇는다.  
 ㉥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잇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잇는  
 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잇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잇는다. 내적인 것을 잇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잇는다.  
 ㉦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잇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잇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잇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잇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  
 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잇어도 좋을 것은 잇고 자  
 신의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지 않는다.”  
 - 유한준, 「잇음을 논함」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  
 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2.<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⑤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3.(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뱃’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4.㉠~㉥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잇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② ㉡ :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 ③ ㉢ : 잇음에 대해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 ④ ㉣ : 잇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⑤ ㉥ : 잇음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하여 잇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다.

5.㉦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 ②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 ③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 ④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 ⑤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6.<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와 (다)에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 주는 방식이나,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 ①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②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사유하여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③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잇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나)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데 주목해 ‘내적인 것’을 잇으면 ‘외적인 것’에 매몰된다는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⑤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잇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잇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마약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 “애최에 니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송업구……, 온, 글썸, 그만 허구 들어가야. 니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계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박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계가 시초를 낸 게니까 ——”

하고, 뽀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씹이 무슨 씹이나?”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개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욱지거리를 허구 그러다니…….”

쫄, 쫄, 쫄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쥬, 그렇구 말구요. 씹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 허구 허는 건, 꼭 하늘 보구 침 빨기지. 그 욱이 다아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두 제엔장할…….’

㉣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겼어어?”

“문 좀 여세요. 아,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득이한테 저의 아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아아니, 그래, 애아범이 미우면 으떻게는 못 해서, 그 더러운 뒷간

[A] 속에다 글썸 가뉘야만 헌단 말예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러야 옳단 말예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하지 못

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 가며,

[B]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뉘?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 난 꼭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쇠 쳤지. 온, 알구야 왜 미쳤다고 잠그겠수?”

발명을 하였으나,

[C]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아 알구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쇠 썰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못 들었단 말예요? 듣구두 모른 체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하고, 갑득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쳐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뭘어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 박태원, 「골목 안」 -

\* 불단집 : 집 밖에도 전등을 단, 살림이 넉넉한 집.

7.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 ②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 ③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양금을 씻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8.[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 ②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⑤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9.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머니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 ②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머니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 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둬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삽표의 연이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 ① ㉠ : 말줄임표 이후 삽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 : 말을 전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서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④ ㉣ : 인물의 생각에 대해 삽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 : 감탄사 이후 삽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풍에 돛을 달고 **육선**이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놀라리라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 지우고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뵈 만하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아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신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중략)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을 여쭙으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

- 김인겸, 「일동장유가」 -

(나)

꼬아 자란 **층석류**\*요 틀어 지은 **고사매**\*라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제1수>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뚝대로** 소일하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牧叟) 는 웃고 가리키나니

<제6수>

맑은 물에 벼를 갈고 청산에 섰을 친 후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제9수>

- 유박, 「화암구곡」 -

\* 층석류 : 석류나무로 만든 분재.

\* 고사매 :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11.(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12.[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선상에서 불빛 두어 점에 의지해, 떠난 곳을 가늠하는 행위를 통해 출항 후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B]에서는 신하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임금의 배려에 감격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③ [C]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A]에서는 포구를 돌아보지만 보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B]에서는 격식을 갖추기 위해 뜨거운 땅에 엎드려 있는 일을 힘겨워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예기치 않게 맞닥뜨린 여정상의 위험이, [C]에서는 과거의 위험했던 경험에 대한 소회가 드러난다.

13.<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道)'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氣)'라고 파악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 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진 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했다.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집해』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 등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1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 ②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15.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②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 ④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 ⑤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16.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② ㉠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③ ㉠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④ ㉠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 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의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 ⑤ ㉠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17. (나)의 왕안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ㄱ.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만 만물에 앞서서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ㄷ.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ㄹ.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 ① 왕안석은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ㄴ에 동의하겠군.
- ② 왕안석은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 ③ 왕안석은 ㄷ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오징은 ㄱ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오징은 ㄴ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18.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 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①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
- ②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안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 ③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 ④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 ⑤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